

Yoon Jiwon  
**Web Design & Graphic Design**

# Portfolio

e-mail: wannit921@kakao.com

Phone: 010-2620-0326

# Contents

- 
- 0. 디자인 이력서
  - 1. 폴리곤 아트
  - 2. 팝아트
  - 3. 매쉬 아트
  - 4. 아이소메트릭
  - 5. 리플릿 디자인
  - 6. 편집 디자인
  - 7. 패키지 디자인
  - 8. BIP 통합 디자인
    - 1 ) 봉투 디자인
    - 2 ) 간판 디자인
    - 3 ) 사원증 디자인



광주광역시 북구

만 22세

010-2620-0326

@jiwon\_ll

wannit921@kakao.com

## Education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2017)

한울직업전문학교  
모던웹디자인 과정 수료  
(2021.07.28~2022.01.06)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2021)

## Tool Skill



Adobe Illustrator (50%)



Adobe Photoshop (50%)



Adobe InDesign (45%)



Figma(60%)



Html & CSS & JQuery (50%)

## Hobby



디저트 맛집  
찾아다니기



홈베이킹



건반 연주하기

## Certificate



GTQ 1급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필기합격)

## 1. 폴리곤 아트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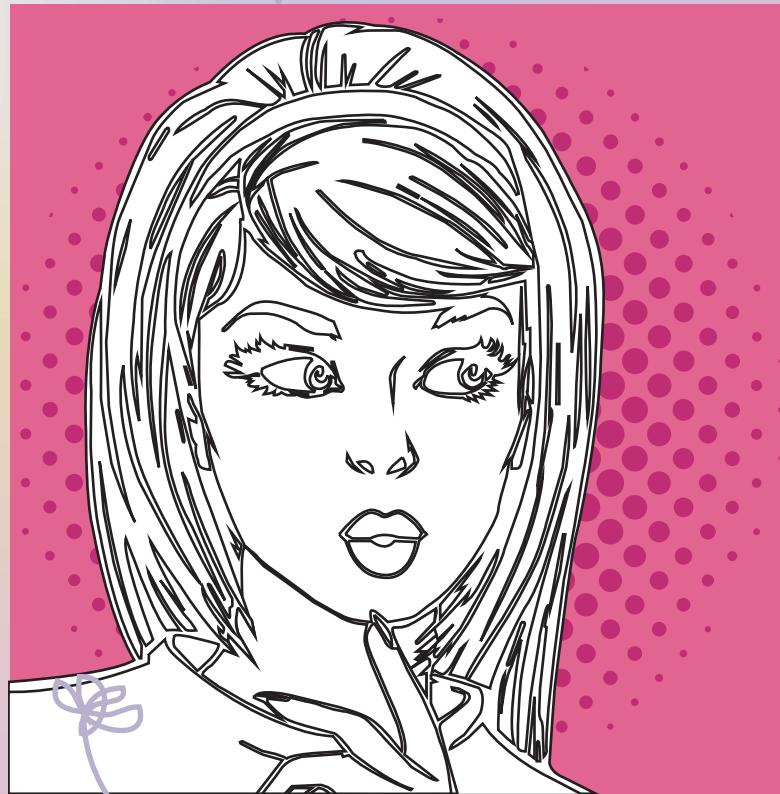
실제 사진을 도형을 사용한 폴리곤 아트로 제작했습니다.



## 2. 팝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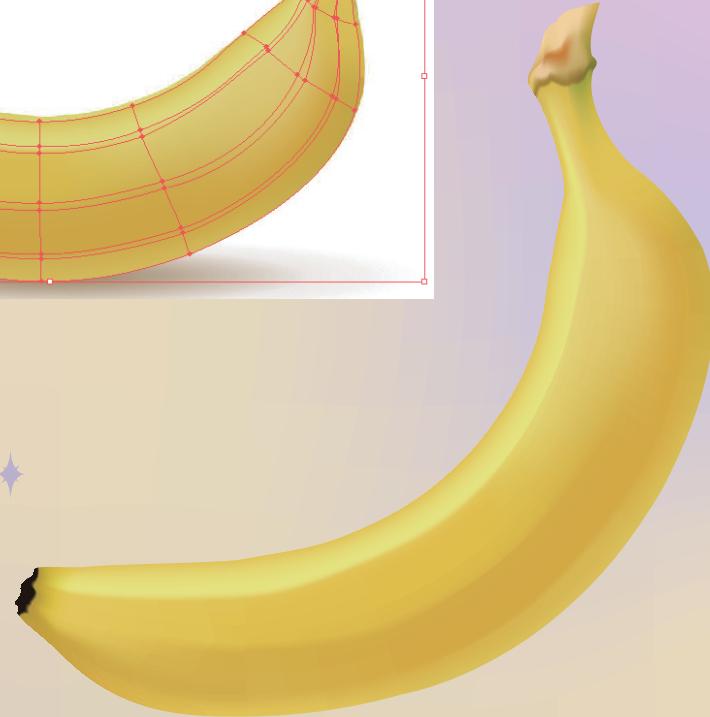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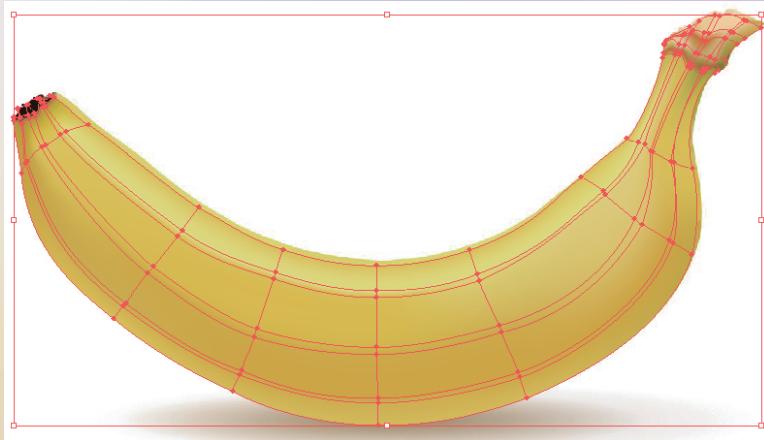
Ai

만화와 같은 그림체가 특징인 팝아트 기법으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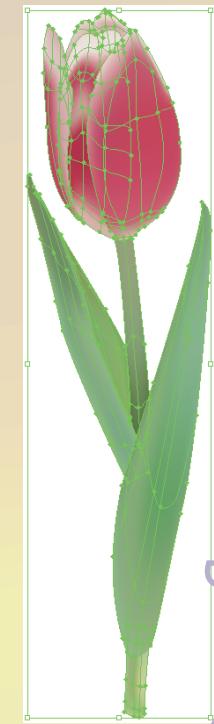


### 3. 매쉬 아트

Ai



그라데이션과 명암 표현이 실제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쉬 기법을 사용한 사물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일러스트를 위해 매쉬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 4. 아이소매트릭

Ai

최근 자주 쓰이고 있는 입체 도형을 아기자기하게 배치하는 기법인  
아이소매트릭 기법을 사용한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정원이 잘 꾸며진 집을 주제로 하여 작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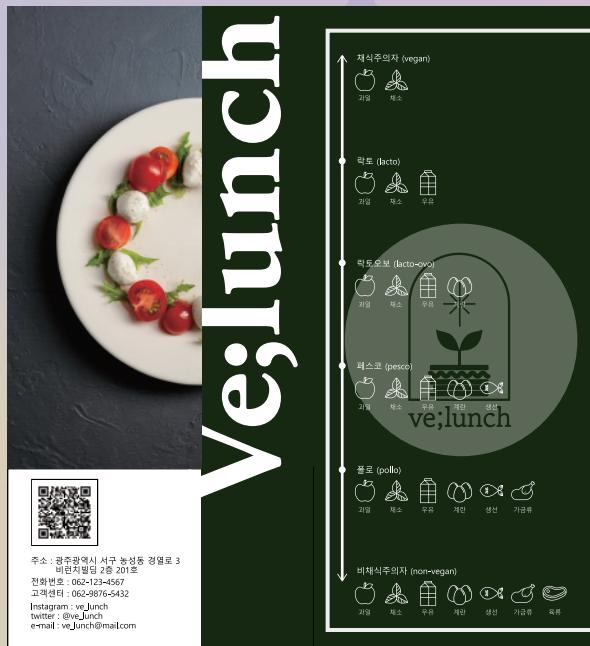
## 5. 리플릿 디자인

Ai Ps

비런치'라는 가상의 채식 브런치 카페를 주제로 꾸민 리플릿입니다.

카페를 소개하고 메뉴를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장에는 카페 위치,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채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했습니다.



# 6. 편집디자인

Ai Ps

음악이라는 주제를 삼아 제작한 잡지 디자인입니다.  
잡지라는 매체 특성상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사진과 글씨 모두 묻히지 않고 보여야 하기 때문에,  
글씨와 사진의 레이아웃을 신경써서 제작했습니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면에서 활성화 호흡을 자랑했던 두 친구는 이제 끝도 없는 원색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물론 어디로 헤시 모션 걸은 심어놓은 VSX을 한 번에 풍靡하는 걸은 아니지만요. 어느 날 어디 브록(를 하지) 않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락처인 멀리티스 캐시트(디자인: 배슬란)가 나타납니다. 아픈 곳과 같은 대증제의 시기가 도려울 것이라는 의심심한 말을 내뱉는 멀리티스 캐시트.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사정 말처럼 날 사람이 말합니다. 빙간 심어놓고도 마음을 드러내려니 그를 침울하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 고리를 벤한 것. 그리고 곧장 과거의 면모 슈리코나(오디오 해리스)를 찾으려 갑니다.

많은 사람이 블록식 음악은 어렵다고 말한다. 좁쌀한 마음이 끝 때까지 있으면 그래도 다른 참 음의 내에서는 지금껏 음악이라는 말만 듣지 않아도 마음에 헤아린 미소를 띠면서 만도 해개 모르게 험방하게 생각을 하며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고, 누구하고 놀고 싶은가 하니 할이다.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으면 이 치구상에 클래식이라는 예술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존재의 가치를 떨날 수 있겠습니까?

사진적 의미에서 보기는 '클래식은 고대 로마 시민의 최고계급을 지칭하는 라틴어 '글라시우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오늘날에는 가장 안정적이며 전형적이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된다.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이, 뭔가 그런 모양일까? 전형적인 모습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면 현지 모르게 험방하게 생각을 하며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고, 누구하고 놀고 싶은가 하니 할이다.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으면 이 치구상에 클래식이라는 예술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존재의 가치를 떨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존재의 가치를 떨날 수 있겠습니까?

언정적이며 전형적인 클래식이라는 어려운 고하고, 묵직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유통적 이해를 끌기 위해 자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나음을 기꺼이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클래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노력한 그 모임을 소개합니다.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클래식의 또 다른 얼굴

1997년 한국영화 한 편이 인기를 끈다. 그해 한국영화 홍보영상을 기록하여 대중상 영예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했고, 전도연은 최종상금 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걸속'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화가 성공하면서 주제음악으로 사용되었던 음악까지도 만기를 염두에 두면서 한동을 감달하는데, 영화 '걸속'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은 사라 블론, 부른 'A Lover's Concerto',로, 이 음악은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이 바흐의 '마뉴�数(BWV 114)'로 알고 있었던 실체로는 크리스티안 페트졸드(Christian Petzold, 1977~1973)의 작품으로, 블론의 멜로디에 감각적인 리듬을 기여하여 판생시킨 클래식의 또 다른 모양의 음악이다.

1965년 미국의 상어솔리이었던 샌디 린저(Sandy Linzer)와 데니 랜델(Denny Randell)이 발표한 이후 크게 인기를 끌자 여러 가수에 의해 커버되어 벌써 된다. 하지만 한때까지도 사람들은 사랑 노래를 받은 버전은 사라 블론이 부르는 'A Lover's Concerto'를 것이다.

이외에도 뚝월 출신의 그룹 백호의 'G 성상의 아리아',를 샘플링(sampling)하여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노래로 발표했고, 미국 가수 에릭 카펜(Eric Carmen)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의 멜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myself'라는 노래를 출시했다.

가수들은 둘째 일본에서는 The Venus라는 그룹이 백호번의 '멀리제'를 위하여,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한 새 음악(Odeon) 품으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높음(ナカニシテ),라는 타이틀의 가로로 불렸고, 가수 하라하라 아야카(原麻理香)는 영국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의 '후미터-Jupiter', 멜로디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도자크트의 경우는 현재 동료로 불리고 있지만, 본래는 상상이었던 '빈박반박' 작은 별'의 멜로디를 그대로 활용하여 12번주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예술상의 기질을 발휘하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사랑을 끌고 연주하며 사랑하는 음악으로 탄생시켰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감각적인 물부한 삼성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존한 채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면에서 활성화 호흡을 자랑했던 두 친구는 이제 끝도 없는 원색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물론 어디로 헤시 모션 걸은 심어놓은 VSX을 한 번에 풍靡하는 걸은 아니지만요. 어느 날 어디 브록(를 하지) 않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락처인 멀리티스 캐시트(디자인: 배슬란)가 나타납니다. 아픈 곳과 같은 대증제의 시기가 도려울 것이라는 의심심한 말을 내뱉는 멀리티스 캐시트.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사정 말처럼 날 사람이 말합니다. 빙간 심어놓고도 마음을 드러내려니 그를 침울하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 고리를 벤한 것 그리고 과거의 면모 슈리코나(오디오 해리스)를 찾으려 갑니다.

많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고 말 한다. 익숙한 마음이 들키지만 그래도 미분한 음악 대체는 자주한 음악이라는 말만 듣지 않아도 마음에 희미한 미소를 띠면서 안도를 해게 만든다.

사전적 의미에서 엿보는 '클래식은 고대 로마 시민의 최고계급을 지칭하는 라틴어 '글라시우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오늘날에는 가장 안정적이며 전형적이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된다.

최고의 예술 작품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으면 이 치구상에 클래식이라는 예술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존재의 가치를 빛낼 수 있었겠습니까?

언정적이며 전형적인 클래식은 때로는 어렵다고 하고, 대체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득구의 이해를 즐기 위해 자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기꺼이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클래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노력한 그 모임을 소개합니다.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클래식의 또 다른 얼굴

1997년 한국영화 한 편이 인기를 끈다. 그해 한국영화 홍보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전도연은 최종상금 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걸속'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화가 성공하면서 주제음악으로 사용되었던 음악을 듣는다. 영화 '걸속'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은 사라 블론, 부른 'A Lover's Concerto',로, 이 음악은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이 바흐의 '마뉴�数(BWV 114)'로 알고 있었던 실체로는 크리스티안 페트졸드(Christian Petzold, 1977~1973)의 작품으로, 블론의 멜로디에 감각적인 리듬을 기여하여 판생시킨 클래식의 또 다른 모양의 음악이다.

1965년 미국의 상어솔리이었던 샌디 린저(Sandy Linzer)와 데니 랜델(Denny Randell)이 발표한 이후 크게 인기를 끌자 여러 가수에 의해 커버되어 벌써 된다. 하지만 한때까지도 사람들은 사랑 노래를 받은 버전은 사라 블론이 부르는 'A Lover's Concerto'를 것이다.

이외에도 뚝월 출신의 그룹 백호의 'G 성상의 아리아',를 샘플링(sampling)하여 'Everything's gonna be alright',이라는 노래로 발표했고, 미국 가수 에릭 카펜(Eric Carmen)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2악장,의 멜로디를 도입 부분에 사용하여 'All by myself'라는 노래를 출시했다.

가수들은 둘째 일본에서는 The Venus라는 그룹이 예술 베이의 '아리제'를 위하여,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한 새 음악(Odeon) 품으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높음(ナカニシテ),라는 타이틀의 가로로 불렸고, 가수 하라하라 아야카(原麻理香)는 영국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의 '후미터-Jupiter', 멜로디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도자크트의 경우는 현재 동료로 불리고 있지만, 본래는 상상이었던 '빈박반박' 작은 별'의 멜로디를 그대로 활용하여 12번주곡의 클래식 음악으로 예술상의 기질을 발휘하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사랑을 끌고 연주하며 사랑하는 음악으로 탄생시켰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감각적인 물부한 삼성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존한 채 또 다른 모습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 7. 패키지 디자인

Ai Ps

우유팩 디자인 목업입니다. 하단 오른쪽 일러스트는 우유팩 도면입니다.  
블루베리맛 우유, 귀엽고 아기자기한 감성을 주제로 디자인했습니다.



## 8. BIP 통합 디자인

### 1) 봉투 디자인

Ai

위의 ‘비런치’의 대봉투, 소봉투 디자인입니다.

‘비런치’의 모던하고 깔끔한 감성과, 채식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디자인했습니다.  
가장 큰 이미지가 메인 디자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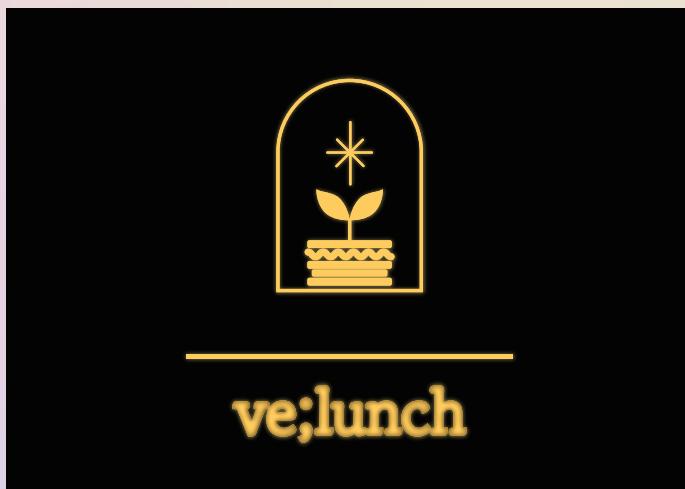
## 8. BIP 통합 디자인

### 2 ) 간판 디자인

Ai Ps

위의 ‘비런치’의 간판 디자인입니다.

‘비런치’의 모던하고 깔끔한 감성을 위주로 디자인했습니다.  
까만 바탕에 금빛으로 은은히 빛나는 음각 조명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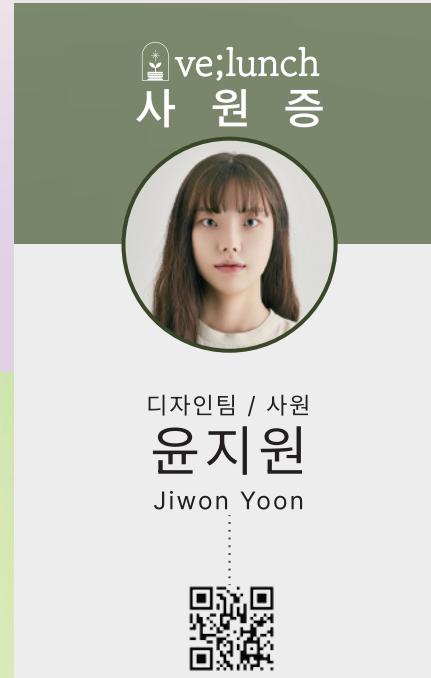


## 8. BIP 통합 디자인

### 3) 사원증 디자인

Ai Ps

'비런치'의 사원증 디자인입니다.  
위 봉투, 리플릿의 디자인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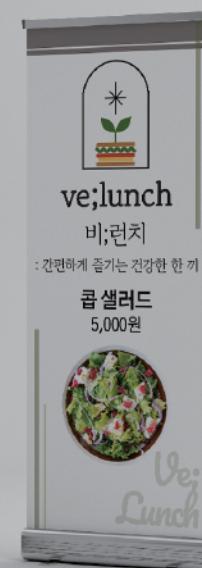
## 8. BIP 통합 디자인

### 4) 배너 디자인

Ai Ps



‘비런치’의 배너 디자인입니다.  
할인 행사와 새로운 메뉴 출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면서도  
지금까지 이어갔던 ‘비런치’만의 감성을 놓치지 않도록 제작했습니다.



## 8. BIP 통합 디자인

### 4) 입간판 디자인

Ai Ps



**ve;lunch**

*today's Menu*

**Soup**

- 오리지널 콘스프
- 양송이 스프

**Sandwich**

- 연어 샌드위치
- BLT 샌드위치
- 속재료가 자유로운 야채 샌드위치

**Salad**

- 콥 샐러드
- 카프레제
- 콘 샐러드
- 닭가슴살 샐러드

**Dessert**

- 크로와상(비건/논비건)
- 마카롱(논비건)

**Drink**

- 아메리카노
- ABC주스
- 제철 과일 주스

**ve;lunch**